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81>

JCCT 2024-7-9

여자대학생의 소셜 미디어 노출, 월경태도와 탐폰사용 의도

The Exposure on Social Media, Menstrual Attitudes, and Intention to Tampon us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송민선*, 정희자**

Min Sun Song*, Heeja Jung**

요약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탐폰사용 의도 정도를 확인하고, 탐폰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여자대학생 140명이며, 자료수집은 2024년 3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카이제곱 검정,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의 63.6%가 탐폰 사용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폰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상태, 월경기간, 탐폰사용 경험으로 '미혼', '월경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탐폰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탐폰사용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여성의 생리용품의 사용실태와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월경특성에 맞는 최선의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의 특성 및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여자대학생, 월경태도, 월경용품, 탐폰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level of intention to tampon use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tampon use. The participants were 140 female university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through an online survey using chi-squared test,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rom March 13 to March 30, 2024.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63.6%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had an intention to use tampon and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tampon use were marital status, length of menstruation, and prior experience with tampon use. Specifically, participants who were 'unmarried', 'had menstruation lasting 5 days or shorter', and 'had previous experience with tampon use' demonstrated a higher intention to use tamp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changing patterns of women's menstrual product usage and intention,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and establish educational and promotional strategie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usage of menstrual products, enabling women to choose the best products suited to their menstrual needs.

Key words :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nstrual attitudes, Menstrual sanitary products, Tampon

*정희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17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5일

Received: April 17, 2024 / Revised: May 17, 2024
Accepted: June 5, 2024
**Corresponding Author: jhj1215@konyang.ac.k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 Korea

I. 서론

여성의 월경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며, 여성 건강의 지표이다. 생리대는 여성이 초경부터 폐경까지 월경 시 생리 혈의 흡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품이나 생리용품 사용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생리대의 종류는 일회용 생리대, 재사용 가능한 면 생리대,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 등을 포함하며 서양 여성들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생리대 중 탐폰 사용자가 가장 많은 반면 2018년에 진행된 우리나라 미혼여성 대상 연구결과에서는 일반 패드형 생리대가 82.1%로 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탐폰 사용률은 12.2%로 나타났다[1]. 그러나 202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자 군에서 탐폰의 사용률이 중복응답을 고려했을 때 23.2%까지 높아져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군의 생식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여성의 생리용품의 사용실태와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월경특성에 맞는 가장 최선의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2].

탐폰은 월경 중 수영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대학생의 생리대 사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탐폰의 경우 외국의 탐폰보다 딱딱하고 불편하며, 잘못 삽입 시 이물감이 느껴진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탐폰을 질 속에 삽입하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우리나라 여성들의 탐폰 사용을 제한하는 감추어진 원인에 대한 규명은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았다[2-4].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탐폰 사용의도의 영향요인은 소셜 미디어 노출, 탐폰사용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문화적 규범(Norm)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5,6]. 중국의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성들이 탐폰사용의 건강상 이점 및 탐폰사용이 하나의 트렌드로 인식함으로써 여성들의 탐폰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 우리나라의 여성도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탐폰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나 소셜 미디어 노출이 여성 월경용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

여성들의 월경용품 선택에 있어 여성의 내적인 요인 외에 사회적인 모든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월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인 월경태도 또한 중요하다. 월경을 전후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이 심하거나 월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일수록 월경태도는 부정적이며,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있을수록 부정적인 월경태도가 나타난다[6]. 여성들의 월경태도와 월경용품의 선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월경태도는 전통적인 월경용품을 대체하는 자신의 월경관리를 위한 최상의 월경용품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월경용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월경관련 개인위생, 안전성, 환경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젊은 여성군에서 탐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들의 탐폰사용 의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탐폰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여성들이 월경용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신의 월경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적인 월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식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탐폰 사용자군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노출, 월경태도 및 탐폰사용 의도를 확인하고, 탐폰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다양한 월경용품의 특성과 이용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소셜 미디어 노출, 월경태도와 탐폰사용 의도에 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대학생으로 제외기준은 임신부 및 무월경 여성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본 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인 11개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선택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23명이었다 [7]. 불충분한 응답과 탈락률 약 15%를 고려하였으며, 최종 140명을 모집하였고 모집된 대상자는 모두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초경 연령, 월경기간, 월경주기, 월경량, 월경통, 진통제 복용,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었다.

2) 소셜 미디어 노출

본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 노출 정도는 Yang 등[5]의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 노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 관련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서 검색하였나요?’의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한 번이라도 검색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소셜 미디어 노출이 있는 것’으로, 한 번도 검색하지 않는 경우는 ‘소셜 미디어 노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월경태도

본 연구에서는 Yang [8]의 월경태도 측정 도구인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Menstruation Scale, A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MS는 여성만의 비밀 8문항, 여성의 짐 5문항, 전통적 여성성 5문항, 여성의 상징성 3문항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범위는 21-14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월경태도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1$ 이었다.

4) 스마트폰 사용 의도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의도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의도가 있나요?’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생리용품 중 스마트폰을 가장 자주 사용할 의도가 있다’, ‘다른 생리용품과 함께 필요시 사용할 의도가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의도가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적

절성 평가를 위해 여성간호학 전공 교수 1인 및 간호학 전공교수 1인의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는 “생리용품 중 스마트폰을 가장 자주 사용할 의도가 있다”와 “다른 생리용품과 함께 필요시 사용할 의도가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 의도가 있음’, 그 외의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 의도가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24년 3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구글 폼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설문종료 후 문자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5.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월경 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월경 관련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의도의 차이는 Chi-squared 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소셜 미디어 노출, 월경태도 및 스마트폰 사용 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KYU 2024-02-007),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목적 및 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구글 폼으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코드화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관하며,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코드화된 자료는 영구삭제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스마트폰 사용 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21.20

±2.74세였으며, 20세 이상이 105명(75.0%)이었다. 미혼인 경우가 128명(91.4%)으로 많았으며, 초경연령은 평균 12.32±1.41세였으며, 10-12세가 86명(61.4%)으로 많았다. 월경기간은 6일 이상이 75명(53.6%), 월경주기가 규칙적인 경우가 73명(52.1%), 월경량은 보통인 경우가 89명(63.6%), 월경통은 보통인 경우가 75명(53.6%),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60명(42.9%), tampon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90명(64.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mpon사용 의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 전체 140명 중 tampon사용 의도가 있는 군은 89명(63.6%), tampon사용 의도가 없는 군은 51명(36.4%)이었다. 두 군을 비교한 결과, tampon사용 의도는 월경기간($\chi^2=7.31, p<.05$) 및 tampon사용 경험($\chi^2=23.4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표 1. tampon사용 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ntention to use tampon (N=140)

Variables	Total	Intention to use tampons		χ^2 (p)
	n(%) or M±SD	Yes (n= 89)	No (n=51)	
Age (year)	21.20±2.74			
10-19	35(25.0)	21(15.0)	14(10.0)	0.26 (.612)
≥20	105(75.0)	68(48.6)	37(26.4)	
Marital status				
Yes	12(8.6)	5(3.6)	7(5.0)	2.72 (.099)
No	128(91.4)	84(60.0)	44(31.4)	
Menarcheal age (year)	12.32±1.41			
10-12	86(61.4)	54(38.6)	32(22.8)	0.07 (.967)
13-14	43(30.7)	28(20.0)	15(10.7)	
15-16	11(7.9)	7(5.0)	4(2.9)	
Length of menstruation (day)				
≤5	65(46.4)	49(35.0)	16(11.4)	7.31*
≥6	75(53.6)	40(28.6)	35(25.0)	
Regularity of menstruation				
Regular	73(52.1)	46(32.9)	27(19.3)	0.02 (.886)
Irregular	67(47.9)	43(30.7)	24(17.1)	
Menstrual volume				
Least	20(14.3)	13(9.3)	7(5.0)	0.37 (.831)
Moderate	89(63.6)	55(39.3)	34(24.3)	
Heavy	31(22.1)	21(15.0)	10(7.1)	
Menstrual pain				
Minimal	16(11.4)	8(5.7)	8(5.7)	5.10 (.078)
Moderate	75(53.6)	54(38.6)	21(15.0)	
Severe	49(35.0)	27(19.3)	22(15.7)	

Taking painkiller				5.26 (.072)
Yes	60(42.9)	36(25.7)	24(17.1)	
No	31(22.1)	16(11.4)	15(10.7)	
Occasionally	49(35.0)	37(26.4)	12(8.6)	
Experience of tampon use				23.46***
Yes	50(35.7)	45(32.1)	5(3.6)	
No	90(64.3)	44(31.4)	46(32.9)	

* $p<.05$, *** $p<.001$

2. 대상자의 소셜 미디어 노출, 월경태도 및 tampon사용의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소셜 미디어 노출, 월경태도 및 tampon사용 의도와의 상관관계에서 tampon사용 의도는 소셜 미디어 노출과는 음의 상관관계($\rho=-.21, p=.012$)를 나타내었으며, 월경태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소셜 미디어 노출, 월경태도 및 tampon사용 의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ocial media exposure, menstrual attitudes, and intention to use tampon (N=140)

Variables		1	2	3
		ρ (p)		
1	Social media exposure	1		
2	Menstrual attitudes	.03 (.710)	1	
3	Intention to tampon use	-.21 (.012)	-.15 (.076)	1

3. 대상자의 tampon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tampon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여자대학생의 tampon 사용의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결혼상태, 월경기간 및 tampon사용 경험으로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 보다 미혼인 경우가 tampon사용 의도가 32.76배 높았으며(Odds ratio [OR] = 32.76, Confidence interval [CI] =3.85-278.76. 월경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에 비해 6일 이상인 경우 0.16배 낮았으며(OR=0.16, CI= 0.05-0.46), tampon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에서 tampon사용 의도가 0.04배 낮았다(OR=0.04, CI=0.08-0.16)(Table 3).

표 3. 대상자의 tampon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participants' intention to use tampon (N=140)

Variables	Odd Ratio	95% CI of OR	p
Age (year)			
10-19	Ref		
≥20	1.18	0.42-3.37	.753
Marital status			
Yes	Ref		
No	32.76	3.85-278.76	.001
Menarcheal age			
10-12	Ref		
13-14	1.37	0.46-4.06	.569
15-16	1.96	0.37-10.82	.439
Length of menstruation			
≤5	Ref		
≥6	0.16	0.05-0.46	.001
Regularity of menstruation			
Regular	Ref		
Irregular	1.47	0.54-4.02	.451
Menstrual volume			
Least	Ref		
Moderate	0.60	0.15-2.46	.480
Heavy	2.15	0.42-11.12	.360
Menstrual pain			
Minimal	Ref		
Moderate	1.22	0.25-6.02	.811
Severe	0.52	0.07-3.71	.512
Taking painkiller			
Yes	Ref		
No	0.375	0.08-1.88	.233
Occasionally	3.29	0.91-11.97	.070
Experience of tampon use			
Yes	Ref		
No	0.04	0.08-0.16	<.001
Social media exposure for the past 6 months			
Yes	Ref		
No	0.60	0.21-1.68	.327
Menstrual attitudes	1.03	0.99-1.07	.139
Nagelkerke R ²	0.505		
Chi/df	64.453/15		

IV. 논 의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tampon 사용 의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여성들에게 다양한 월경용품의 특성과 이

용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의 tampon 사용 의도는 대상자의 63.6%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가입기 여성의 tampon 사용이 약 12%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여성들의 tampon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4]. 따라서 여성들에게 tampon 사용과 관련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양식 및 월경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생리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tampon 사용 의도의 영향요인은 결혼 상태, 월경기간 및 tampon 사용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기혼보다 미혼인 경우 tampon 사용 의도가 32.76배 높았으며, 월경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에 비해 6일 이상인 경우 tampon 사용 의도가 0.16배 낮았으며, tampon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에서 tampon 사용 의도가 0.04배 낮았다.

선행연구에서 결혼 상태와 tampon 사용 의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를 확인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이 대부분인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되어 tampon 사용 의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월경기간과 tampon 사용 의도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tampon 사용 경험과 tampon 사용 의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여성들의 경우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동안 생리혈 냄새나 생리혈이 새어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공통된 불안이 있으나 tampon의 사용은 이러한 불안을 크게 완화시켜 주며, 활동에서 높은 편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의 tampon 사용 경험이 tampon 사용 의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4].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월경량 및 월경통이 tampon 사용 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tampon이 월경량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과 월경불편감을 완화시키는 강점으로 tampon을 선택했다고 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소셜미디어 노출이 tampon 사용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tampon의 사용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tampon 사용을 하나의

트렌드로 인식하게 되어 사용 의도를 높인 것과는 달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 tampon사용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많이 접했을 경우 오히려 사용 의도를 낮추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관련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5].

요약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용하는 월경용품은 급속하게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는 현재까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 생식건강 개선과 변화하는 여성들의 월경용품 선택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tampon을 포함한 월경용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과학적인 정보에 근거한 교육과 홍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tampon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tampon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상태(미혼), 월경기간(5일 이하), tampon 사용 경험(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여성들이 월경용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신의 월경특성과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tampon을 포함한 월경용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H.J. Kim, S.Y. Choi, "Status of use of menstrual hygiene products and genital organ hygiene management in un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24, No. 3, pp. 265-275, September 2018. <https://doi.org/10.4069/kjwhn.2018.24.3.265>

[2] E. Park, E. Bae, "The use and perception of menstrual hygiene products among female adolescents in Korea", *Public Health Weekly Report*, Vol. 13, No. 10, pp. 531-543, March 2020.

[3] M.R. Singer, N. Sood, E. Rapoport, H. Gim, A. Adesman, R. Milanaik, "Pediatricians'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surrounding menstruation and feminine produc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Vol. 34, No. 3,

pp. 1-18, January 2019. <https://doi.org/10.1515/ija-mh-2019-0179>

[4] Y.J. Seo, D.E. Kim, J.A. Mok, M.Y. Young, H.J. Baek, G.H. Sung, Y.I. Lee, E.H. Jung, H.C. Jeong, "Effect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with sanitary products except for disposable sanitary pad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11, pp. 683-691, November 2019.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1.061>

[5] Y. Yang, X. Ma, J.G. Myrick. "Social media exposure, interpersonal network, and tampon use intention: A multigroup comparison based on network structur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8, No. 4, pp. 343-355, March 2023. <https://doi.org/10.1177/13591053221120332>

[6] L. Ren, D. Simon, J. Wu, "Meaning in absence: The case of tampon use among Chinese wome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24, No. 1, pp. 28-46, March 2018. <https://doi.org/10.1080/12259276.2017.1421291>

[6] J.E. Kim, "A model of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factors influencing college women's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3, No. 2, pp. 224-244, June 1993.

[7]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 1149-1160, November 2009. <https://doi.org/10.3758/BRM.41.4.1149>

[8] D.O.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d years after menarche and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02.